

불자 세상보기



법해 스님  
진관사 총무

2009년 5월 진관사에서 발견된 태극기와 독립신문 등의 사료들은 일제 강점기 식민지하에서 독립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자료들이다. 이 진귀한 자료들은 기존에 연구된 독립운동 사료들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희귀본들이다. 또한 이 자료들은 상해임시정부와 국내 독립운동단체들의 연계성을 확인하는 중요성도 내포하고 있다.

사부대중 갈럼



손재현  
동국대  
참사람봉사단 부단장,  
체육교육과 교수

지난 7월 20일 카자흐스탄으로 출발한 동국대 참사람봉사단 학생 30명과 함께 8월 4일까지 15박 16일간 알마티 지역 노인요양병원에서 쉼터를 짓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실 이번 해외봉사는 단순한 봉사 차원을 넘어 취업에 도움이 되는 기회도 함께 제공하자는 취지가 강했다. 계절학과 학생들과의 멘토링, 봉사 이후 1주일간 카자흐스탄 신한은행에서의 인턴십 등이 진행됐다.

진관사와 8.15의 의미

러나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반면에 만해와 용성 등 두 스님은 끝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종교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광복의 희망을 불어 넣었다. 더불어 초월스님은 옥사를 선택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에게 '조국은 목숨으로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기억해야 한다. 나라를 빼앗기고 36년 동안 선조들이 피땀으로 지켜낸 이 땅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망쳐서는 안 된다. 매년 3.1절을 기념하고 8.15를 돌아켜 생각하는 것은 한 순간이라도 선조들이 보여준 애국애족의 정신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방법으로 애국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국민들이 화합하고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 힘이 분산될 뿐이라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광복의 기쁨을 맛보고 독립된 정부를 수립한지 6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 남북통일이 그것이다.

일장기에 그린 진관사 태극기 역사 창출의 메시지 담아내 선열들 '애국애민' 되새겨야

분단된 국토를 통일하여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베트남을 보면서 통일의 중요성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오랜 권위주의적 독재정권하에서 신음하던 이집트와 리비아 등이 민주화를 쟁취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피를 흘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도 남의 일로만 볼 수는 없다. 국민들의 화합을 이루지 못하여 내전으로 치달고 있는 시리아 사태를 보면서 국민과 정권의 화합과 민주화가 얼마나 필요한지 인식할 수 있다.

社說  
日 불교, 동국사에 참회비 세우는 뜻

올해로 한국은 광복 67주년을 맞는다. 반 세기가 지났지만 한일 양국의 역사적 갈등은 사그라질지 모른다. 더욱 첨예해지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불교의 전후(戰後) 참회가 담긴 '참사문(懺謝文)' 비문을 제막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이런 비문 건립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은 일이다. 이들의 참회가 20여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서 유일한 일본식 사찰 동국사에 비문으로 형상화되기 때문이다. 양국 정부가 못하는 일들을 불교인들이 나서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불 부른다. 이제 필요한 것은 한일 양국이 객관화된 사실로 문제에 접근하는 일이다. 이런 접근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후세를 교육시키는 게 갈등의 고리를 끊어내는 우리의 숙제다.

만해학의 세계화는 대작 불사다

'공감·상생', 세계가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자는 의미다. 만해 스님이 생전에 강조했던 사상과 일맥상통하다. 그래서인지 이번 2012 만해축전의 슬로건으로 채택됐다. 올 만해축전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만해학 연구의 지평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만해학 연구는 그동안 국내서 시문학, 독립운동사, 불교사상 등의 측면에서 주로 조명돼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아시아와 만해'를 주제로 연구 지평을 넓혔다. 이는 세계적으로 발길을 넓혀 외국 사상가들과 동등한 눈높이로 비교 검토를 통해 만해학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의지 천명인 것이다.

오늘 우리가 갈구하는 희망이자 발원의 주옥같은 언어들이다. 만해 스님의 사상과 철학은 이제 우리나라의 것만이 아니다.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해 초석을 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만해축전서 수여하는 만해대상 학술상과 문학상은 2004년부터 국내 학자에서 수상자의 외연을 넓혀 해외 저명 학자들에게도 시상하고 있다. 그동안 데이비드 맥켄, 윌레 소잉카, 루이스 랭카스터, 로버트 버스웰 등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 지는 학자들이 수상했다. 이렇듯 만해학의 세계화는 이미 8년전부터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는 만해학의 지평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속의 만해' 등이 후속적으로 연구돼 만해학의 세계화가 이루어질 것 기대해 본다. 그래서 지구촌 곳곳서 만해 스님의 심오한 사상과 철학 정신이 세계인의 가슴 속에 삶의 지표로 자리매김 되길 바란다.

해외봉사, 참사람 키우는 기회

고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쉼터를 만들고 '기방 만들거면 제대로 만들어야죠' 하며 야간작업까지 진행했던 봉사단원들, 열악한 사정으로 사다리 등 작업도구도 직접 만드는 것을 보며 이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헤쳐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요"란 말이 아직도 귓가에 울리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학생들이 스스로 더 큰 세상을 만나고 한 단계 발전하는 기회가 비용 등의 문제로 일부 인원에게만 제공된다는 사실이다. 이번 해외봉사단을 모집하는데 세 번째 도전 만에 가게 됐다는 학생들이

있지만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해외봉사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특히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단체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번에는 불교NGO인 월드머시코리아 대표 현진 스님이 봉사활동에 함께 했다. 1000만원에 달하는 거금을 지원하기도 했지만, 스님이 함께 나무를 나르며 일일이 학생들과 소통한 점이 기억에 남는다. 많은 학생들이 함께 일하고 스님과 대화하며 고정관념과 인식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어떤 학생은 '아, 내가 다니는 학교가 불교종립학교구나' 느꼈다고도 말했다.

카자흐스탄 일원에 쉼터 건립 도우며 봉사하는 모습 '호뭇' 해외봉사 확대위한 지원 필요

을 쉽게 만나볼 수 있었다. 학교 내에서는 학생들 사이에 '한번 가볼만 하다', '좋다'는 입소문이 돌고 있다고 한다. 먼저 참여한 이들이 각종 모임에서 봉사단 참여를 추천해주는 힘이 크다. 하지만 다양한 해외 참여의 기회를 열기 위해서는 각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학교 측에서 비용을 지원해주고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해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3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전북지사: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영주지사: (054)634-3429 부산지사: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정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안내
1. 인간과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2. 영가천도는 왜 필수 해주어야만 하는가?
3. 태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4.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5.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제지영가들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6.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7.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8.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례)
9.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시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여겨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10.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11.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작대기風水
풍수지리는 自然現象이다.
풍수의 낭만(浪漫)은 은화한 들만의 조화로운데 있다. 들만이 어디 그냥 들만이겠는가? 그 속의 그림을 감상할 수 없다면 어떻게 재미를 느끼며 자연을 논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세상은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공평한 것이므로 남을 부러워 할 필요도 자기 자신을 자책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 이현당 저음 / 신국판 / 364쪽 / 정가 20,000원
육임이 보인다
\* 신국판 / 양장본 / 70,000원
\* 신국판 / 양장본 / 45,000원
\* 신국판 / 양장본 / 25,000원
\* 신국판 / 양장본 / 880쪽 / 2권 680쪽 / 2권 50,000원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50,000원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사주풀이의 범수
자평 명리학의 신화...
자평 명리학의 신화...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신 사람들은 방향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 송월스님 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50,000원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26,000원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26,000원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26,000원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26,000원